

피학대아동이 비행에 이르는 발달경로*

정익중**

(덕성여자대학교)

박현선

(전북대학교)

구인회

(서울대학교)

[요 약]

학대의 영향은 피학대아동의 당시 개인적 피해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후 그 피해자가 자식이 나 타인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비행에 빠져서 가해자로 재등장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본 연구는 피학대아동이 직접적인 1차 피해를 넘어서 비행의 가해자로 등장하게 되는 발달경로를 고찰하였다. 이러한 경로를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서울아동패널' 1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구조방정식모형을 이용한 분석결과, 아동학대는 직접적으로 비행과 연결되기보다는 자아존중감의 저하라는 경로와 또래집단으로부터의 소외 및 학교애착심의 감소라는 경로를 통해 간접적으로 비행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추정된 구조방정식모형의 적합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본 연구는 학대 유형에 따른 비행화 경로에서의 차이는 없고,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 모두 간접적으로 비행과 연결된다는 사실을 실증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결과에 따른 사회복지의 실천적 함의가 논의되었다.

주제어 : 아동학대, 비행, 자아존중감, 또래집단으로부터의 소외, 발달경로

1. 문제제기

아동학대는 역사적으로 오래된 현상이지만, 사회문제로 인식하게 된 것은 비교적 근래의 일이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체벌을 훈육의 일 수단으로 묵인하여 왔고, 아동학대는 '단순한 가정사나 '개

* 이 논문은 2004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4-042-B00112).

** 주저자, 교신저자

인 소유물에 대한 통제' 정도로 여겨져 왔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아동학대를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예방하려는 노력이 서구 선진 국가들에 비해 늦게 시작되었다. 2000년도에 비로소 아동복지법의 개정으로 학대받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법조항이 대폭 강화되었고, 전국적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제도화되기에 이르렀다.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진행된 아동학대에 대한 대다수의 연구들은 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발생원인을 규명하는 데 관심을 두었다. 반면 학대 이후의 경험을 체계적으로 탐색하거나 분석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학대의 결과에 대한 연구들은 학대의 심각성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 사례의 에피소드적인 영향을 보고하는데 치중하였다. 게다가 학대의 신체적 영향이나 후유증이 생사여부를 좌우하는 시급한 문제이다 보니 신체적 측면을 중심으로 한 직접적인 1차 피해에 초점 맞추어 보고하고 있다. 또한 학대의 결과로 인한 신체적, 정서적, 사회·행동적 문제들이 병렬적으로 나열될 뿐 그것들 간의 상호관계나 전후관계에 대한 연구나 학대의 영향이 어떠한 방식으로 전개되는지에 대해 고찰한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최근 고미영(2004) 등이 피학대아동의 경험과 상황을 질적으로 탐구하였지만, 이는 사례수의 한계, 공식적 학대사례로 표본이 한정된 연구 설계의 제약 등으로 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학대의 영향에는 분명 과정상 시간적인 전후관계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보다 효과적인 아동학대의 치료를 위해서는 학대를 경험한 아동의 발달과정을 조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입의 새로운 지점을 발견해내고 치료의 기초 자료를 찾아내는 것이 필요하다.

학대는 피학대아동이 경험하는 당시의 직접적 피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폭력의 순환 개념이나 폭력의 세대간 전이 가설에서 볼 수 있듯이 피학대아동이 또 다른 학대나 비행의 가해자로 등장하는 2차 피해를 가져오기도 한다. 이렇게 해서 폭력과 비행이 계속해서 순환되는 것은 피해 당사자 본인은 물론이고 사회적으로도 커다란 문제가 될 수 있다. 다수의 연구들에서 학대받은 아동들은 비행이나 범죄에 빠지기 쉬운 청소년, 성인으로 자라난다고 보고하고 있다(Herrenkohl, Egolf, and Herrenkohl, 1997; Smith and Thornberry, 1995; Widom, 1989; 엄명용, 2001; 김준호·김순형, 1995). 이러한 연구 중 상당수는 단순하고 결정론적이기 때문에 치료적 개입을 위한 실질적인 자료로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자 비난하기(blame the victim)'의 일종으로 학대받은 아동을 고정된 시각으로 유형화하고 이들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찍는데 일조하기도 한다. 동일하게 학대받은 아동이라 해도 각각 발달적 특성이 다르고 학대와 관련된 경험적 요소들이 다를 수 있다. 똑같이 아동학대 피해를 당했다 하더라도 어떤 아동은 정상적으로 성장하고 어떤 아동은 비행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으며 이들은 각기 다른 과정을 통해 서로 상이한 발달과정을 경험할 수 있다. 왜 특정 아동학대 피해자가 가해자로 재등장하게 되는 것일까? 피학대아동은 어떻게 하여 비행을 하는가? 아직까지 피학대아동의 어떤 요인들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비행을 초래하는지 분명치 않다.

비행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도 아동학대를 비행 유발의 병렬적인 한 위험요인으로 상정하고 이를 '과거 아동기에 어떠한지' 묻는 회고적(retrospective) 질문을 통해 연구에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기억의 소실이나 왜곡 등과 같은 회고적 질문의 위험을 간과하고 있으며, 아동학대와 비행과의 관련성을 단편적으로 나열하여 피학대아동이 왜, 어떻게 비행에 이르게 되는지에 대한 과정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아동학대 경험이 어떤 발달경로를 통해서 비행을 유발시키는지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아동학대가 단독으로 비행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아동학대와 비행의 연관성은 두 변수들 사이에서 공유되는 매개요인에 의해서 나타날 수도 있다. 학대경험이 비행의 위험요인 중 하나라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학대가 비행을 유발하느냐 아니냐를 논하기 보다 피학대아동의 비행화를 유발하는 상황적 조건 즉, 매개요인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한 과제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학대경험이 어떤 특정한 상황적 조건 하에서 비행을 유발하는지를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피학대아동이 비행에 이르는 과정을 탐구한다. 과정을 탐구하는 것은 변수간의 연결 관계를 자세하게 이해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피학대아동의 비행 행동을 설명하는 주요한 변수들의 영향 관계를 과정으로 제시하고 경험적인 연구방법으로 이를 검증함으로써 선행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다.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아동학대와 비행과의 관계를 매개하는 변수들을 발견하여 모형화한 후에 이를 구조방정식모형(structural equational modeling)을 이용하여 통계적으로 검증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을 통해 이론적으로 피학대아동의 비행경험 과정을 설명하는 실증적인 모형을 제공하고, 실천적으로 피학대아동의 비행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실천의 지점과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물론 학대의 발생자체를 막는 1차 예방이 가장 중요하지만, 학대가 상존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학대의 피해를 치료하기 위한 2차 예방도 그것만큼 중요하게 간주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 연구는 학대와 비행의 관계를 연결하는 매개적인 과정에 대한 이해를 제공함으로써, 피학대아동이 비행화 과정으로 진입하여 2차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돕는 사후적 개입, 혹은 2차 예방을 위한 개입의 가능성을 보여주고자 한다.

2. 이론적 논의 및 개념적 틀

대부분의 연구에서 비행이 아동학대의 결과 중 하나로 다른 후유증과 함께 단편적으로 나열되고 있으며, 아동학대도 비행의 원인 중 하나로 다른 원인과 함께 병렬적으로 언급되고 있다. 이렇게 아동학대가 중심이 된 연구나 비행이 중심이 된 연구에서 아동학대와 비행이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이 둘 간의 매개과정에 대한 이해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이다. 또한 지금까지 피학대아동의 비행화 과정과 관련된 설명은 학습이론이나 애착이론을 중심으로 한 가정내적 과정에 치중되어 있었다. 학습이론에 의하면 비행은 부모로부터 모방되고 학습되어진 생활양식의 한 방법으로서, 피학대아동은 성장하면서 자신의 가정에서 배운 부정적 생활양식을 외부로 표출하게 된다는 것이다(Pagelow, 1984). 반면 애착이론에 의하면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은 아동은 부모와의 애정관계가 불안정하게 이루어지고 부모의 학대를 합리화하는 왜곡된 정서·인지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성장하면서 비행과 같은 범법행위를 자연스럽게 합리화한다는 것이다(Dodge, Bates, and Pettit, 1990). 이러한 설명은 생활양식의 내면화나 인지구조의 확립 등 장기적인 과정과 결과를 설명하는 데는 적합하지만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아동 개인에게 일어나는 심리적 과정과 결과를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또한 학령기가

동의 경우 가족 이외에 학교 환경이 가장 중요하더라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론들은 이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 이론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아동 개인의 심리적 특성과 학교 내 과정을 중심으로 이론적 논의를 정리하려 한다.

1) 아동학대와 비행 간의 매개변수로서 자아존중감

아동은 독자적인 생활이 불가능하고, 자기 방어력이 약하므로 학대를 받을 경우, 아동의 신체적·정서적·인지적 발달을 포함하는 거의 전 발달 영역에서 심각한 손상을 입는다. 이때 피학대아동은 일반아동과는 다른 독특한 행동 및 발달 특성을 보이는데 이러한 영향은 아동기의 단기적 문제에 그치지 않고,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지속된다(Dodge et al., 1990; English, 1998). 피학대아동은 학업성취가 떨어지고, 정신적 문제, 성 문제, 알코올 및 약물중독을 경험하며, 심각한 비행과 범죄에 빠질 확률이 높아진다(English, 1998; Dembo, Williams, Wothke, Schmeidler, and Brown, 1992).

학대로 인해 아동에게 가장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심리·정서적 후유증은 자아개념의 왜곡과 자아존중감의 저하이다(Green, 1985; Cerezo and Frias, 1994; 연진영, 1992). 아동은 대개 학대경험의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에서 자기중심적이고 이분법적인 사고를 한다(Briere, 1992). 이러한 사고를 통해 부모는 나쁠 수 없으므로 학대받는 자신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부모에 대해 싫은 감정을 지니거나 속상한 마음이 드는 자신이 학대받아 마땅한 아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아동은 반복적인 학대를 통해 실제로는 잘못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 때문에 처벌받는 것으로 생각한다. 학대가 자신의 잘못에서 기인한다고 믿는 아동은 자신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존중하기 어렵다. 또한 피학대아동은 학대를 부모가 자신을 싫어하고 거부하는 메시지로 받아들이고 자신에 대한 매우 부정적인 자아상을 만들게 된다. 학대는 이러한 경로를 통해 부모가 격려해 주어야 하는 아동의 자아발달을 위축시키고 부정적인 자아개념을 심어준다(Allen and Tarnowski, 1989; Oates, Forrest, and Peacock, 1985).

부모가 아동에게 학대를 가할 때 신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아동의 자신 및 주변 세계에 대한 내적 신념을 함께 손상시키게 된다. 따라서 자신의 존재가치를 확인시키고 강화해 주어야 하는 부모로부터 존중받지 못하고 학대를 받은 아동의 경우 자신을 무능하다고 인식하며 자신에 대해 나쁜 감정을 느끼게 되고, 자신은 타인으로부터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으로 간주하게 된다(Crittenden and Ainsworth, 1989). 이러한 낮은 자아존중감은 자신을 함부로 다루며 스스로를 통제하고자 하는 의지도 약하게 만든다. 또한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했다는 슬픔은 자신을 부끄러운 존재라고 생각하게 되고, 부끄러운 존재가 되게 한 자기 자신과 세계에 대해 분노를 느낀다. 이러한 아동은 미래에 대한 계획 없이 충동적으로 생활하며 아픈 기억들을 잊기 위해 노력한다. 자아존중감은 한 개인의 심리적 특성뿐만 아니라, 행동적 특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로 알려져 있다. 즉,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신경증, 불안, 우울과 같은 심리적 문제뿐만 아니라, 자기파괴적 행동이나 약물남용, 알코올중독, 비행 등과 같은 일탈행동적 문제들을 보인다(Daly and Burton, 1983; Owens, 1994).

2) 아동학대와 비행 간의 매개변수로서 또래집단으로부터의 소외와 학교애착심

학교는 대부분의 학령기 아동이 가정 다음으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장소이며 아동이 필요로 하는 신체적·인지적·정서적·사회적 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공간이다. 따라서 학교생활을 성공적으로 영위하는 것은 아동의 건전한 발달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허남순·오정수·홍순혜·김혜란·박은미·정익중, 2005). 일반적으로 피학대아동에게 학교는 '피난처'로서 아동 자신이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예측 가능하고 일관성 있는 환경이라고 간주되어 왔다. 하지만 피학대아동의 행동이 일반아동과 상이하거나 부적절하여 다른 아동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거나 놀림을 당할 경우 학교는 아동에게 또 하나의 '고통'이 될 수도 있다.

건강한 가정 내에서 성장하지 못한 아동은 학교 내에서 친구를 사귀는데 어려움을 겪을 뿐 아니라, 제한된 대인관계기술로 인해 친구와 종종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Mueller and Silverman, 1989). 따라서 대부분의 피학대아동은 친구로부터 고립을 경험하거나 친구관계가 원만하지 않다(Gelles and Straus, 1990; 고미영, 2004).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피학대아동이 대인관계에서 보이는 통상적인 행동이나 반응은 공격적이고 적대적인 행동으로 집중된다는 점이다(노충래, 2003). 둘째, 피학대아동은 목욕을 하지 않아 냄새가 나고 청결하지 못하거나 제철이 지난 옷을 입고 용모가 지나치게 흐트러져 있는 등 기본적으로 필요한 의식주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해 친구들에게 호감을 얻지 못하기도 한다(허남순 외, 2005; Howe and Parke, 2001). 셋째, 학대받은 아동들은 집중력 장애, 과잉행동, 인지적 결손, 학교준비 부족 등으로 낮은 학습 능력을 보인다(Kolko, 1992; Gelles and Straus, 1990). 종종 이러한 아동은 행동문제와 학습부진을 이유로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는 것은 물론 부모로부터도 더욱 학대받게 되어 계속 악순환 된다.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학대를 경험한 아동은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더 공격적이다(Green, 1985; Salzinger, Feldman, Hammer, and Rosario, 1993). 이러한 관계는 먼저 학습이나 모방의 효과로 설명할 수 있다. 즉, 자신의 분노를 적절히 표출하는 성인 역할모델이 없었고, 그들이 보아온 것은 폭력적인 행위를 통해 분노를 표출하는 모델이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학습하거나 모방하게 된다는 것이다. 폭력행동을 어떤 문제나 감정, 갈등에 대한 해결의 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환경에서 자라난 아동은 문제해결 능력, 충동조절 등 여러 가지 발달기능에 있어 심각한 손상을 겪을 수 있다. 또한 가정에서 학대를 당한 아동들은 부모에 대한 강한 적개심을 느끼게 되고, 이 적개심이 억압되어 있다가 다른 대상에게 전이되는 과정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따라서 부정적인 심리 반응은 이후 공격성이나 반사회적 행동으로 진행될 수 있는 매개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학대와 같은 심한 스트레스를 주는 사건들은 아동에게 큰 정서적 혼란을 일으킨다. 아동들은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따라서 이를 적절히 처리하기 어렵다. 이런 혼돈 상태는 후에 공격적인 방식으로 감정을 표출하려는 성향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폭력적이고 공격적인 아동은 학교에서 친구 및 교사들과의 관계가 원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노충래, 2003).

또한 대인관계에 있어서 학대받은 아동들은 일반아동들보다 표현적인 언어사용능력이 부족하여 궁

정적인 상호작용을 적게 시도하고 부정적인 상호작용을 많이 사용함으로써 다른 아동들로부터 호감을 얻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McFadyen and Kitson, 1996; Haskett and Kistner, 1991). 피학대아동은 때때로 친밀한 관계에서 요구되는 것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며 자신의 정서적 불안정으로 인해 상대방의 감정에 대해 공감하거나 이해하는 것 역시 어렵다(Howes and Espinoza, 1985). 학대당한 아동은 자기 자신과 다른 아동의 의도와 행동을 인식하는 능력에 한계가 있고 타인의 감정 표현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 따라서 피학대아동들은 일반아동들에 비해 상대방의 행위를 더 쉽게 적의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었다(Grus, 2003; Dodge et al., 1990). 또한 피학대아동은 자신의 감정이나 행동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전혀 학습하지 못했기 때문에 감정의 조절이나 처리가 매우 어려워 이를 누르거나 참았다가 터뜨리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 이런 감정 조절의 어려움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갈등 상황을 초래하여 아동으로 하여금 친구로부터 소외·고립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빚어낸다(고미영, 2004).

위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 이유로 피학대아동은 또래집단과의 관계에서 소외되기 쉽다(Bolger and Patterson, 2001; Bolger, Patterson, and Kupersmidt, 1998). 또래집단으로부터의 소외(peer rejection)는 초기 부적응 행동의 결과인 동시에 좀 더 심각한 비행의 원인이기도 하다(Coie, 1990). 집단 따돌림을 통해 또래집단으로부터 소외된 학생은 등교를 거부하거나, 학교활동 및 친구들과의 일상적인 상호작용을 기피하게 된다(이상균, 1999; Boulton and Underwood, 1992; Olweus, 1993). 이러한 경험이 있는 아동들은 학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또는 태도를 갖게 되며,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감이 떨어질 수 있다(Kochenderfer and Ladd, 1996; Olweus, 1993). 가정에서건 학교에서건 환영받지 못하고 따돌림을 당하고 소외된 아동은 마음속에 분노만 가득하고 불만과 반감이 쌓여간다. 누군가 수용하고 이해해주면 오히려 이상한 느낌이 들고 소외당하는 것이 익숙해져서 더 소외를 불러오는 행동을 하게 되고 자포자기를 하게 된다. 이러한 집단 따돌림이나 소외를 경험한 아동들은 낮은 학업성취, 낮은 학교애착심과 학교부적응 등의 특징을 보인다(최진희, 2000; Hoover and Hazler, 1991).

낮은 학교애착심이 약물중독, 학교중도탈락, 폭력, 비행 등의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것이 여러 연구에서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Hawkins, Catalano, and Miller, 1992; Dornbusch, Erickson, Laird, and Wong, 2001). 학교와 관련된 불유쾌한 경험이나 학교부적응, 학교실패 등이 욕구불만을 낳고 이것이 기존 질서에 동조해야겠다는 의식을 감소시키면서 비행에 빠지게 된다. 또한 학교부적응은 학교에서의 여러 친사회적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막고 비행 등 반사회적인 활동에 참여하여 대리만족을 얻도록 한다(Hamre and Pianta, 2001). 반면 학교애착심은 비공식적인 통제로 작용하여 반사회적인 활동이 학교 내에서의 본인의 위상을 위협하게 만들 것이라는 의식을 형성시켜 비행에 빠지는 것을 막는다(Cernkovich and Giordano, 1992). 이렇게 학교애착심은 특정 행동의 비용과 효과를 계산하게 하여 개인의 행동 선택에 영향을 준다. 학교애착심이 높은 아동은 비행이 주는 비용의 희생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수용되는 행동을 한다. 학교애착심이 낮은 아동은 이미 학교와는 관계가 멀기 때문에 체면 손상, 교사의 처벌 등 비행이 주는 비용의 희생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비행에 쉽게 빠지게 된다(Jessor, Van Den Bos, Vanderryn, Costa, and Turbin, 1995). 이렇게 교사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해도 상관없다고 믿거나 학교에 가고 싶어 하지 않는, 학교애착심이 낮은 아동의 경

우 비행의 위험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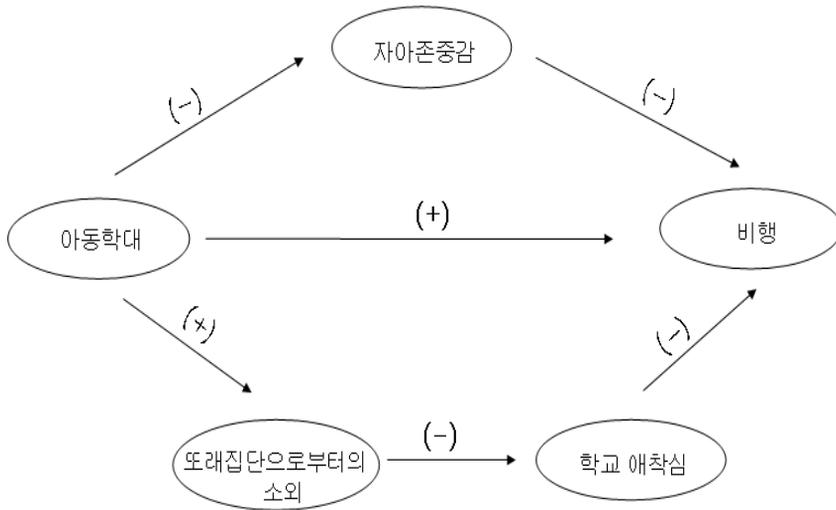
3) 연구모형 및 가설설정

본 연구는 피학대아동이 비행에 빠지는 과정을 탐구한다. 위에서의 이론적 논의를 통해 피학대아동의 비행과정은 <그림 1>과 같이 제시된다. 이 모형에서 아동학대와 비행 간의 관계는 자아존중감, 또래집단으로부터의 소외, 학교애착심의 매개적 과정으로 분해되었다. 이 때 아동학대와 비행 간의 직접적 경로를 함께 포함하여 살펴봄으로써 아동학대의 비행에 대한 직접적 영향을 다른 매개요인을 통한 간접적 영향과 비교하여 살펴볼 것이다.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이 설정되었다.

가설 1. 아동학대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비행을 증가시킬 것이다.

가설 2. 아동학대는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하여 비행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즉, 아동학대가 증가할수록 자아존중감은 저하되고, 자아존중감이 저하될수록 비행은 증가할 것이다.

가설 3. 아동학대는 또래집단으로부터의 소외와 학교애착심을 매개로 하여 비행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즉, 아동학대가 증가할수록 또래집단으로부터의 소외가 증가하고, 이러한 소외가 증가할수록 학교애착심은 저하되고, 학교애착심이 저하될수록 비행은 증가할 것이다.



<그림 1> 아동학대가 비행에 이르는 경로

3. 연구방법

1) 분석자료

본 연구의 분석은 ‘서울 아동발달 및 복지실태 조사’(이하 서울아동패널) 1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였다. 서울아동패널은 초등학교 4학년 아동 1,811명과 그 부모를 대상으로 2004년부터 연 1회 이루어지는 종단적 조사이다. 이 패널은 서울지역의 한 자치구인 K구를 선정하여 전체 초등학교를 저소득지역 학교와 비저소득지역 학교로 층화하고 저소득지역 학교를 과대표집하는 방식으로 11개 초등학교를 표집하였다. 표집된 11개 초등학교의 4학년 재학 아동과 그 부모 전수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하였다. 자료수집방법은 아동과 부모에 대해 별도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다. 아동에 대해서는 전문 조사원이 교실에서 행하는 집단 면접을 통해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부모에 대해서는 아동을 통해 설문지를 전달하고 부모가 자기기입후 밀봉하여 보내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최종 분석에서 사용된 본 연구의 대상은 남학생의 비율이 52.4%(948명), 여학생의 비율이 47.6%(863명)로 조사되었다. 또한 빈곤층 아동의 비율이 약 7%(121명)이며 비빈곤층 아동의 비율은 93%(1,656명)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2) 변수의 정의 및 측정

본 연구모형에서 아동학대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개발한 아동학대 문항을 사용하였다. 이는 아동 자신의 보고에 의해 부모의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을 측정한 것이다. “부모님이 나를 밀쳐서 벽에 머리를 부딪쳤다”, “부모님의 발에 차이거나 깨물리거나 주먹에 맞았다”, “부모님이 휘두르는 몽둥이나 굵은 막대기, 혁대로 맞았다” 등 5문항으로 신체적 학대를 측정하였고, “내가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낄 정도로 부모님이 꾸짖은 적이 있다”, “부모님이 나에게 ‘너만 없으면 속이 편할 것이다’와 같은 말을 하였다”, “부모님이 나에게 ‘멍청한 것’, ‘개만 못한 것’, ‘바보자식’과 같은 모욕적인 말을 하였다” 등 3문항으로 정서적 학대를 측정하였다. 마지막으로 “나는 더러운 옷을 입고 지내거나 습기 찬 이부자리에서 잠을 잔 적이 있다”, “부모님은 내가 고열이 나거나 아파도 그냥 내버려 둔 적이 있다”, “부모님은 이유 없이 내가 학교에 결석해도 나에게 아무 말 안 한다” 등 7문항으로 방임을 측정하였다. 학대 경험을 ‘전혀 없었다’를 ‘0’으로, ‘1년에 1~2번 정도’를 ‘1’로, ‘2~3개월에 1~2번 정도’를 ‘2’로, ‘한달에 1~2번 정도’를 ‘3’으로, ‘일주일에 1~2번 정도’를 ‘4’로 환산하여 합산하였다. 이는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의 아동학대가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동의 비행은 한국판 자기행동평가척도(K-YSR)의 일부를 선택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아켄마크(Achenbach, 1991)가 개발한 아동행동조사표(CBCL: Child Behavior Checklist)를 번역하여 한국적 특성에 맞게 수정하고 표준화한 것으로 만 4~17세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본인의 심리사회적 적응 및 문제행동을 설문형식으로 평가하는 도구로서(오경자·이혜련·홍강의·하은혜, 1997), 국

내 여러 선행 연구들(오승환, 2000; 허남순 외, 2005; 정익중·김혜란·홍순혜·박은미·허남순·오정수, 2005)에서 사용되었다. 아켄바크(Achenbach, 1991)는 문제행동을 9개의 하위척도(사회적 위축, 신체증상, 우울·불안, 사회적 미성숙, 사고의 문제, 주의집중 문제, 비행, 공격성, 정체감 문제)로 구분하였다. 또한 이는 사회적 위축과 신체증상, 우울·불안을 포함하는 내재화문제와 비행과 공격성을 포함하는 외현화문제로 구분된다. 본 연구에서는 외현화문제 중에서 비행 하위척도를 선택하여 사용하였다. 이 하위척도는 음주, 폭행, 가출, 방화, 절도, 무단결석, 기물파손 등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없다(0점), 가끔 그런 편이다(1점), 자주 있거나 정도가 심하다(2점)의 3점 척도로 평가하게 되어 있고 이 척도에서 점수가 높을수록 비행 문제가 많은 것을 의미한다.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해 로젠버그(Rosenberg, 1965)가 개발한 자아존중감 척도(Self-Esteem Scale)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국내 여러 선행 연구(박현선, 1998; 이상균, 1999; 허남순 외, 2005)에서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되었다. 이 척도는 아동들에게 평소 자신에 대한 생각을 묻는 “내가 적어도 다른 사람만큼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낀다”, “나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 “대체로 나 자신에 만족한다” 등 1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의 4점 척도에 따라 응답하도록 되어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또래집단으로부터의 소외는 이상균(1999)의 연구를 따라서 학교생활 중에 다른 아이들로부터 조롱, 따돌림, 헛소문, 폭행 등을 당한 적이 있는지 등 4가지의 피해경험이 있는지를 질문하고 각 피해 유형을 경험한 적이 없는 경우 ‘0’, 1번은 ‘1’, 2~3번은 ‘2’, 4번 이상은 ‘3’으로 변환하여 이들을 모두 합산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외롭거나 힘들 때 친구가 함께 있어주는지, 도움이 필요할 때 친구가 도와주는지를 질문하고 각 문항에 대해 역점수화 하여 ‘매우 그렇다’ 1점, ‘가끔 그렇다’ 2점, ‘거의 그렇지 않다’ 3점, ‘전혀 그렇지 않다’ 4점의 척도에 따라 응답하도록 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또래집단으로부터 소외가 심한 것을 의미한다.

학교에착심 척도는 호킨스 외(Hawkins, Catalano, Kosterman, Abbott, and Hill, 1999)의 연구에서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는데 학교생활에 흥미가 있는지, 교과목을 좋아하는지, 숙제를 잘 하는지, 수업태도가 좋은지, 선생님을 존경하는지, 친하게 지내는 선생님이 있는지 등의 8개 항목으로 측정되었으며 각각에 대해 4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학교에 대한 애착심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피학대아동이 비행에 이르는 발달경로를 분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모형을 사용하였다. 구조방정식모형은 Amos 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절차는 개념 측정의 적합도를 검토하기 위한 측정모형을 먼저 추정하고, 이러한 1단계에서 얻어진 측정모형을 활용하여 구조모형 분석을 진행하는 2단계로 이루어졌다.

구조방정식모형에서는 모수 추정과 함께, 추정된 모형이 관측된 자료를 어느 정도 적합시키고 있는

지 전반적인 적합도(fit)를 수치로 보고한다. 모형의 적합도를 파악하기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카이제곱(χ^2) 통계량이 도출된다. 그러나 카이제곱 통계량은 표본크기에 매우 민감하여, 표본의 크기가 큰 경우 쉽게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Kline, 2005). 따라서 카이제곱 통계량 외에 다른 적합지수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배명렬, 2004). Amos 프로그램에서는 카이제곱 통계량 외에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NFI(normed fit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등을 제공한다. 일반적으로 RMSEA 값이 0.06이하면 적합하고, 0.10보다 크면 적합하지 않다고 본다. NFI와 CFI는 0부터 1사이의 값을 가지는데, 1에 가까울수록 최적을 의미하며 0.9이상이면 적합정도가 좋은 것으로 간주하지만 최근에는 0.95 이상이 제안되고 있다(Hu and Bentler, 1999).

편의(bias)가 적은 구조방정식모형분석을 위해서는 분석을 시행하기 전에 결측치(missing data)와 항목 묶기(item parceling)를 검토해야 한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Amos 프로그램 내 결측치를 고려한 모수 추정방법인 FIML(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을 사용하였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잠재변수로 사용되는 모든 측정변수에 대해 여러 항목을 합산하거나 평균한 점수를 산출하여 하나의 지표로 활용하는 항목 묶기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아동학대와 같이 하위 개념이 의미 있는 경우 하위 개념을 구성하는 항목을 합산한 점수를 산출하여 지표로 사용하였다. 반면 자아존중감과 같이 단일차원(unidimensional) 척도이기 때문에 하위 개념이 없는 경우 항목들을 무작위적으로 3등분으로 나눠서 합산한 점수를 산출하여 지표로 사용하였다. 항목 묶기를 하면 개별적인 지표의 의미가 상실되는 단점이 있지만, 개별적인 항목 자체에 관심이 없고 구성된 개념에 관심이 있는 경우 이러한 단점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Bandalos, 2002; Little, Cunningham, Shahar, and Widaman, 2002).

4. 연구결과

1) 아동학대와 비행의 기술통계

학대와 비행의 일반적인 분포 특성을 보기 위해 기술통계치를 살펴보았다[표1]. 본 연구에 포함된 아동들은 여러 학대유형 중 방임을 가장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 반수(47.6%) 정도가 방임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은 정서적 학대(38.2%), 신체적 학대(31.2%)의 순으로 나타났다. 신체적 학대, 방임, 정서적 학대 중 2가지 이상을 동시에 중복 경험하고 있는 아동의 비율은 36.7%로 나타났고,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학대를 경험하고 있는 아동은 64.5%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의 유병률(prevalence)은 같은 전국 규모의 조사라 하더라도 학대의 정의와 표집방법, 조사방식 등에 따라 최소 10.4%에서 최대 79.8%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박정란·서홍란, 2001). 본 연구의 학대 비율도 이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기존 연구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학대경험 집단과 학대를 경험하지 않은 무경험 집단의 비행 정도를 t 검정을 통해 비교한

결과 모든 학대 유형에서 학대경험 집단의 비행정도가 학대 무경험집단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대와 비행의 경험적 관련성이 매우 높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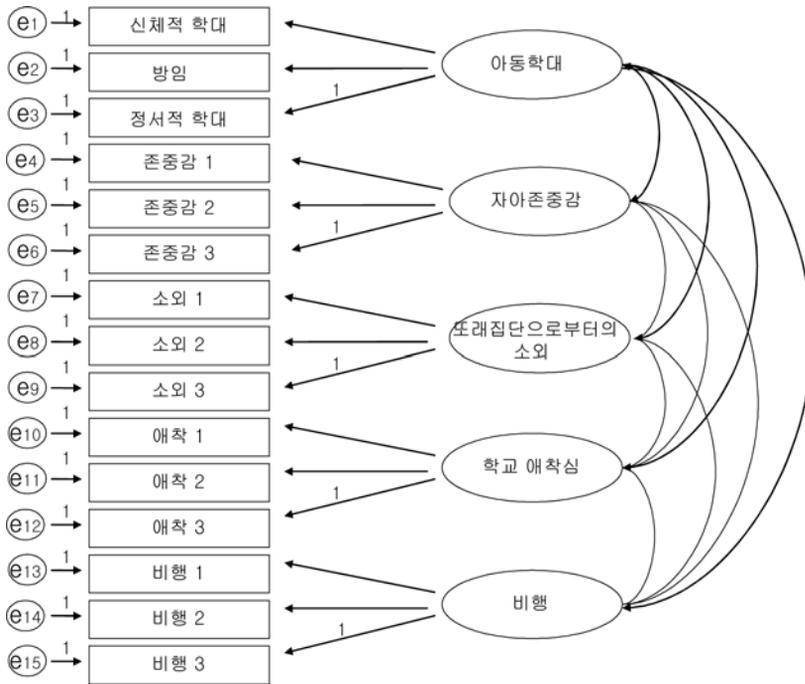
<표 1> 이동학대와 비행의 기술통계치

	빈도(%)		집단간 비행 평균비교 평균(표준편차)		
	예	아니오	학대경험 집단	무경험집단	t값
신체적 학대	564(31.2)	1,245(68.8)	2.17(1.64)	1.46(1.38)	-9.56***
방임	861(47.6)	948(52.4)	2.03(1.60)	1.37(1.32)	-9.70***
정서적 학대	692(38.2)	1,117(61.8)	2.19(1.57)	1.37(1.36)	-11.72***
중복학대	664(36.7)	1,145(63.3)	2.28(1.64)	1.33(1.28)	-13.63***
적어도 1개 이상의 학대경험	1,166(64.5)	643(35.5)	1.98(1.53)	1.15(1.27)	-11.72***

*** p <.001

2) 측정모형 분석

본 연구에서 아동학대, 자아존중감, 또래집단으로부터의 소외, 학교애착심, 비행은 잠재변수로서 다중지표를 사용하여 구성되는데, 이렇게 설계된 측정모형이 과연 적합한지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통해 검토하였다. 측정모형은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잠재변수의 측정모형

분석 결과를 통해 측정변수와 잠재변수의 관계로 제시되는 추정치는 요인적재량으로 해석된다. 이 때, 각 잠재변수 당 하나의 지표(측정변수)의 비표준화 요인적재량을 1로 고정하는데, 이를 준거지표라 한다. 이는 잠재변수에 대해 다른 지표들도 그 지표와 동일한 측정단위(metric)를 제공하도록 잠재변수를 척도화한 것이다(배병렬, 2004). 다중상관자승치(squared multiple correlation: R^2)와 요인적재량을 고려하여 개념에 대한 설명력이 높고 요인적재량이 가장 높은 것을 준거지표로 삼았다. 측정모형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이 요인적재량은 유의수준 .001에서 모두 유의미하였다.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X^2=272.603$ ($df=80$), $p=.000$ 으로 카이제곱 통계량이 유의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연구에서 사용하는 측정모형은 다른 적합도 지수 $NFI=.926$, $CFI=.937$, $RMSEA=.052$ 등을 고려할 때도 자료를 잘 설명하도록 적합하게 구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표 2> 측정모형의 요인적재량

잠재변수	측정변수	평균 (표준편차)	비표준화 요인적재량	표준화 요인적재량	표준오차	t값
아동학대	신체적 학대	5.722(1.582)	.713	.715	.037	19.406***
	방임	8.183(1.862)	.530	.417	.037	14.519***
	정서적 학대	4.107(2.033)	1.000(r)	.785		
자아존중감	존중감1	9.218(1.812)	.976	.647	.047	20.979***
	존중감2	9.223(1.801)	.773	.572	.039	19.644***
	존중감3	11.300(2.693)	1.000(r)	.821		
또래집단으로 부터의 소외	소외1	2.619(1.179)	.777	.651	.037	21.025***
	소외2	3.583(1.699)	.670	.648	.033	20.232***
	소외3	2.707(1.179)	1.000(r)	.748		
학교애착심	애착1	10.095(1.583)	.734	.636	.041	17.829***
	애착2	6.041(1.252)	.700	.519	.034	20.732***
	애착3	10.555(1.551)	1.000(r)	.726		
비행	비행1	.772(.879)	.598	.588	.036	16.542***
	비행2	.230(.507)	.480	.540	.030	15.835***
	비행3	.682(.584)	1.000(r)	.652		

(r) = 준거지표.

*** p <.001

각 잠재변수 사이의 관련성 정도 및 방향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잠재변수 간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이것을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모든 잠재변수 간의 상관관계는 .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밝혀졌다. 학대, 또래집단으로부터의 소외, 비행 간의 상관관계는 양(+)의 상관계수 값을 보였지만, 이들 변수들과 자아존중감 또는 학교애착심 간의 상관관계는 음(-)의 값을 보였다. 상관계수의 값도 이렇게 본 연구의 가설과 방향성이 일치함을 파악할 수 있었다.

<표 3> 잠재변수 간의 상관관계

	아동학대	자아존중감	또래집단으로 부터의 소외	학교애착심	비행
아동학대	-	-.273***	.473***	-.272***	.391***
자아존중감		-	-.238***	.734***	-.421***
또래집단으로 부터의 소외			-	-.256***	.508***
학교애착심				-	-.521***
비행					-

*** p <.001

3) 연구모형 분석

연구모형 분석은 아동학대, 자아존중감, 또래집단으로부터의 소외, 학교애착심, 비행에 대해 <그림 1>에서 설정된 영향관계를 토대로 이루어졌다. 먼저 연구모형에서 다른 매개변수 없이 가설 1. 아동학대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비행을 증가시킬 것인지 여부를 살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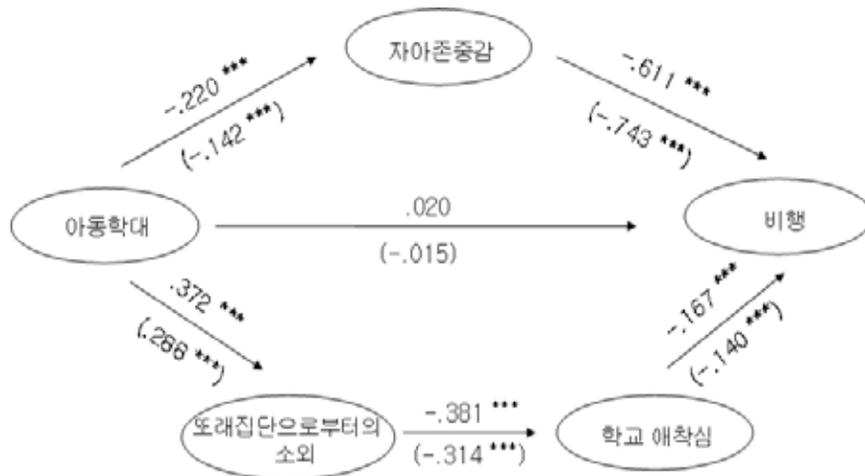


<그림 3> 아동학대와 비행간의 관계

분석결과 <그림 3>과 같이 경로계수에 대한 추정치가 제시되었다. 아동학대→비행은 다른 매개변수를 제외하고 분석하였을 때 경로계수가 .399인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학대 경험이 증가할수록 비행의 가능성도 점점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관계는 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빈곤여부와 성별을 통제한 상황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산출하였다.

다음으로 매개변수를 모두 포함한 완전 구조모형을 분석한 결과 <그림 4>와 같이 아동학대→비행 경로만 제외하고 가설2, 가설3에서 설정된 경로가 모두 .001 수준에서 유의미하였다. 연구모형에서 설정된 경로 가운데 아동학대→비행은 매개변수를 제외한 모형 <그림 3>에서는 관계의 영향도 크고 (.399)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매개변수를 포함한 연구모형에서는 유의수준 .05에서도 경로계수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학대 경험이 비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고, 아동학대와 비행 간의 관계는 자아존중감, 또래집단으로부터의 소외, 학교애착심에 의해 매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경험은 가설 2와 가설 3에서 설정한 대로 간접적으로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미한 영향이 있다고 추정된 경로계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아동학대를 많이 경험한 아동은 자아존중감이 낮아지고(-.220), 이러한 낮은 자아존중감은 비행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다(-.611). 또한 피학대아동은 또래집단으로부터 소외되는 경향이 높고(.372), 이러한 소외는 학교에 대한 애착을 낮춰(-.381), 비행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167). 따라서 아동학대가 비행에 미치는 총효과 .178은 직접효과 .020과 간접효과 .158로 구성된다. 즉, 아동학대가 비행에 미치는 효과 가운데, 아동학대→자아존중감→비행 경로를 통해 미치는 간접효과는 .134 (= -.220×-.611)이고, 아동학대→또래집단으로부터의 소외→학교애착심→비행 경로를 통해 미치는 간접효과는 .024(=.372×-.381×-.167)이다. 아동학대와 비행 간의 관계는 자아존중감을 통해 매개되는 간접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간접효과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이 모형의 적합도는 $X^2=601.828$ (df=105), $p=.000$, $NFI=.925$, $CFI=.944$, $RMSEA=.061$ 로 나타나 모형이 자료를 잘 적합시키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는 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빈곤여부와 성별을 통제한 상황에서도 동일하였다. 또한 내생변수(종속변수)가 외생변수(독립변수)에 의해 설명되는 부분을 나타내는 다중상관자승치(squared multiple correlations)를 살펴본 결과 본 연구의 최종 변수인

비행의 다중상관자승치가 .799로 나타나 비행의 79.9%가 연구모형에 의해 설명됨을 알 수 있다.



경로 상단 : 전체표본 모형(N=1,811).
 경로 하단 괄호안 : 학대 무경험자 제외 모형(N=1,166)

<그림 4> 아동학대가 비행에 이르는 발달경로 분석결과

본 연구의 분석에는 아동학대를 전혀 경험하지 않은 아동도 표본 속에 포함되어 있다. 본 연구모형의 민감도 분석(sensitivity analysis)을 위해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 등을 전혀 경험하지 않은 35.5%(643명)를 제외하고 분석하였다(N=1,166 <표 1> 참조). 그 결과는 <그림 4>의 경로 하단 괄호안의 경로계수이다. 전체표본을 사용한 모형의 결과와 전반적으로 일치하였지만 대부분 관계의 경로계수가 약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혀 경험하지 않는 집단을 제외함으로써 기준율(base rate)을 높여서 나타난 결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아동학대의 유형을 나눠서 분석한 결과, 즉, 연구모형의 다른 부분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아동학대라는 잠재변수 대신에 신체적 학대의 세 지표를 사용해 신체적 학대를 잠재변수로, 정서적 학대의 세 지표를 사용해 정서적 학대를 잠재변수로, 방임의 세 지표를 사용해 방임을 잠재변수로 바꾸어 각각 3개의 모형을 분석한 결과, 아동학대의 어떤 유형도 앞서 살펴본 연구모형의 결과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지면의 한계 상 본 논문에 표로 보고하지 않았지만 교신처자에게 요청하면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학대 유형과 상관없이 아동학대가 비행에 이르는 발달경로는 유사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는 많은 경우 아동학대의 여러 유형이 중복되어 나타난다는 사실을 일정 정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06)의 자료에 의하면 중복학대가 다른 어떤 학대 유형보다 많은 36.9%를 차지하고 있고, 본 연구에서도 중복학대는 36.7%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1>. 결론적으로 학대의 유형에 따른 즉각적인 피해 양상은 상이할 수 있지만 적어도 비행화 과정에서 자아존중감 저하라는 발달경로와 또래집단으로부터의 소외 및 학교애착심 감소라는 발달 경로에는 학대유형에 따라 별 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및 논의

아동학대는 피해아동이 쉽게 벗어나기 어려운 부정적인 경험이며, 그 영향은 오랫동안 당사자들을 괴롭히며 남게 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아동학대는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이미 학대가 벌어진 상황이라면 피해아동에 대한 신체적·정신적·심리적 치료를 위한 다각적인 개입이 이루어져 아동학대의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피해아동의 학대경험을 기억에서 완전히 지워버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피학대아동의 비행화 과정 등 학대가 아동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과정이 비교적 정확히 파악된다면 긍정적 변화를 유도해 낼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본 연구는 아동학대 발생 이후 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피학대아동이 비행을 경험하게 되는 과정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피학대아동의 비행화를 예방할 수 있는 실천 전략이나 개입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중요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학대는 비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가설1은 기각되었다. 아동학대는 비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보다 여러 매개변수를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아동학대는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하여 비행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2와 아동학대는 또래집단으로부터의 소외와 학교애착심을 매개로 하여 비행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3은 채택되었다. 그 중에서도 아동학대와 비행 간의 관계는 자아존중감의 저하 경로를 통해 매개되는 간접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상이한 학대 유형과 상관없이 아동학대가 비행에 이르는 경로는 유사한 것으로 밝혀졌고,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 각각 모두 간접적으로 비행과 연결된다는 사실을 실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학대와 비행의 영향 관계가 다른 변수들에 의해 매개된다는 점을 밝힘으로써 아동학대의 피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비행으로 진행되는 과정을 차단하는 개입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 때 발견된 매개변수들은 피학대아동의 비행을 예방하기 위한 개입의 지점이 된다. 본 연구결과는 학대를 경험한 아동이 자아존중감이 낮거나 또래집단으로부터의 소외에 노출되고 학교애착심이 감소될 때 비행의 위험이 높다고 강조하고 있다. 자아존중감을 높이거나 또래집단으로부터의 소외를 억제하고 학교애착심을 증진시키는 전략은 비행의 고위험 상황에 있는 피학대아동들이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다.

기존의 피학대아동의 치료는 주로 신체적 피해에 대한 의료적 처치와 심리적 외상에 대한 감정적 환기를 목적으로 하는 놀이치료나 미술치료 등 개별적인 치료를 위주로 이루어진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본 연구를 통해 일반적인 아동기 자아존중감 증진 전략이 피학대아동의 경우에도 매우 중요하며, 특히 비행으로 이어지는 2차 피해를 줄이기 위해 더욱 비중있게 다루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아동발달의 관점에서 자아존중감 증진 전략이 모든 아동에게 중요하지만 피학대아동의 경우 신체적, 심리적 외상으로 인한 자아존중감 저하의 정도나 심각성이 다른 어떤 대상보다도 중요하게 문제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므로 위기 상황에서 의료적 치료나 진단적 개입, 감정적 환기를 위

한 놀이치료 등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이후에는 사후관리를 통해 여러 가지 세팅에서 보다 장기적이고 심층적인 자아존중감 증진 전략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자아존중감의 특성상 단기간에 증진되거나 치료되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아동학대 실천현장에서는 업무과중이나 인력부족 때문에 학대상황에서의 위기개입 이후 아동의 증상이 두드러지지 않을 경우 사례가 종료되고, 사후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다(윤혜미, 2003). 사후관리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대부분은 원가정 복귀 여부에 대한 정보 수집이나 재학대 발생 여부에만 맞추어져 있어서 피학대아동의 장기적인 자아존중감 증진이나 학교적응 등은 간과되어 왔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피학대아동의 비행화 과정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아존중감의 증진이나 학교적응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학대와 비행을 연결하는 경로에서 학교상황을 반영하여 가정에서 학대받고 방출된 아동이 학교체계에서는 어떻게 다시 소외, 방출되는지의 과정을 보여주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피학대아동은 학교 내 대인관계에서 많은 갈등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또래집단으로부터의 소외를 극복하고 긍정적 관계 형성을 촉진시키기 위해 사회성기술 및 대인관계기술을 배워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피학대아동에게 학교가 주요한 서비스 제공의 장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학교는 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는 장으로서의 의미만이 강조되어 왔다. 그러나 이제는 학대를 받은 아동들에게 있어 원가정 복귀만큼이나 중요한 이슈가 학교적응임을 주지해야 할 것이다. 즉, 학교가 또 다른 피해의 장이 아니라 학대가정의 대안적 공간이 되어 제대로 보호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사회복지사나 상담교사와 같은 학교내 상담 전문인력 뿐 아니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담임교사가 피학대아동을 중심으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우선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해당 학생에 관한 특별한 관심과 지원에 대한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해당 학생을 학교내 상담 전문인력인 학교사회복지사, 상담교사 등에게 공식적으로 의뢰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형식적인 의뢰에서 나아가 아동이 학교 복귀후 적어도 6개월 간은 학교적응 과정에 대해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

또한 담임교사는 학교내 인력으로서 학교사회복지사와의 '팀 접근'을 통해 피학대아동의 학교생활이나 또래관계를 점검하고 학교에착심을 증진시키기 위한 개입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해당학교에 학교사회복지사와 같은 전문인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담임교사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진다. 담임교사는 아동과 매일 접촉하기 때문에 아동의 행동 및 학습에 대해 매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는 주요 정보원이고, 본 연구의 대상과 같이 초등학교 학생들인 경우 담임교사가 전적으로 교과 및 학교생활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예를 들어 학교의 담임교사는 짝 맺어주기(peer-pairing)나 협동학습(cooperative learning) 등을 통해 피학대아동의 학교적응을 원조할 수 있다. 소외된 피학대아동을 사회성 기술이 잘 발달되어 인기 있는 또래와 짝지어주는 방법을 통해 아동의 사회적 기술과 지위를 동시에 증진시킬 수 있다(Morris, Messer, and Gross, 1995). 또한 특정한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서로 협력하여 상호작용 하도록 요구하는 협동학습을 통해 또래집단 내에서 갈등을 감소시키고 긍정적 상호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다(Siner, 1993). 이러한 접근들은 일상적인 학교 활동과 교육과정 속에 쉽게 통합될 수 있고, 나아가 다른 일반아동들이 소외된 아동과의 직접적인 접

축을 통해 이해의 폭이 넓어지면서 예전에 있었던 따돌림이 얼마나 부당했는지를 아동들 스스로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부가적인 이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가 갖고 있는 한계점은 후속연구의 방향을 제시해 준다. 아동기의 학대경험과 비행의 상관관계는 '서울아동패널'이 계획하고 있는 장기적인 추적조사를 통해 더욱 명확한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전향적(prospective) 추적조사는 아동학대의 영향에 대한 기존 연구에서 만연되어 있는 과거 회고적(retrospective) 질문에 대한 의존성을 낮추는 것은 물론 변수들, 특히 매개변수들 간의 시간적 선후관계를 명확히 구별하는 데 용이하기 때문에 인과관계에 대한 확실정도를 높일 것이다. 또한 피학대아동이 모두 비행에 빠지는 것은 아니다. 심층적인 면접조사를 활용하여 질적인 자료를 첨가한다면 아동학대 피해아동 중 끝내 비행에 빠지는 집단과 비행에 빠지지 않는 집단을 차별화하는 위험요인이나 보호요인들을 보다 심도 있게 밝힐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다루지 못했던 학업성취, 사회적 지지, 지역사회 요인 등과 같은 아동학대 피해경험과 비행을 매개하는 또 다른 주요 변수들이 없는지도 후속연구에서 검증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고미영. 2004. "학대받은 아동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6(1): 71-102.
- 김준호·김순형. 1995. 『가정환경과 청소년비행』.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노충래 역, 2003. 학대와 방임피해 아동의 치료. Urquiza, A. J. and C. Winn. 1994. Treatment for abused and neglected children: Infancy to age 18. 서울: 학지사.
- 박정란·서홍란. 2001. 『아동복지론』. 서울: 양서원.
- 박현선. 1998. "빈곤청소년의 학교 적응유연성".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학위논문(미간행).
- 배병렬. 2004. 『구조방정식모델을 위한 SIMPLIS 활용과 실습』. 서울: 청목출판사.
-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06. 『2005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 엄명용. 2001. "아동학대와 청소년 비행간의 관계: 가족 내 부모지지 및 감독의 완충효과 검증". 『한국가족복지학』 8: 149-178.
- 연진영. 1992. 『아동학대 실태 및 영향』.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오경자·이혜련·홍강의·하은혜. 1997. 『K-CBCL 아동·청소년 행동평가척도』.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 오승환. 2000. "소년소녀가장의 사회심리적 적응 결정요인". 『사회복지연구』 16: 117-141.
- 윤혜미. 2003. "우리나라 아동학대예방센터 활동분석과 아동보호서비스 개선을 위한 논의". 『한국아동복지학』 15: 7-38.
- 이상균. 1999. "학교에서의 또래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학위논문(미간행).
- 정익중·김혜란·홍순혜·박은미·허남순·오정수. 2005.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이 빈곤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학』 57(3): 105-131.
- 최진희. 2000. "아동의 행동문제와 또래피로움이 학교적응과 우정에 미치는 영향의 경로분석". 『아동연구』 14(2): 59-90.
- 허남순·오정수·홍순혜·김혜란·박은미·정익중. 2005. 『빈곤아동과 삶의 질』. 서울: 학지사.

- Achenbach, T. M. 1991. *Manual for the child behavior checklist*. Burlington, VT: University of Vermont.
- Allen, D. M., and K. J. Tarnowski. 1989. "Depressive characteristics of physically abused children."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7: 1-11.
- Bandalos, D. L. 2002. "The effects of item parceling on goodness-of-fit and parameter estimate bia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9(1): 78-102.
- Bolger, K. E., C. J. Patterson, and J. B. Kupersmidt. 1998. "Peer relationships and self-esteem among children who have been maltreated." *Child Development* 69(4): 1171-1197.
- Bolger, K. E., and C. J. Patterson. 2001. "Developmental pathways from child maltreatment to peer rejection." *Child Development* 72(2): 549-568.
- Boulton, M., and K. Underwood. 1992. "Bully/victim problems among middle school children."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62: 73-87.
- Briere, J. 1992. *Child abuse trauma*. Newbury Park, CA: Sage Publications.
- Cerezo, M. A., and D. Frias. 1994. "Emotional and cognitive adjustment in abuse children." *Child Abuse and Neglect* 18: 923-932.
- Cernkovich, S. A., and P. C. Giordano. 1992. "School bonding, race, and delinquency." *Criminology* 30: 261-291.
- Coie, J. D. 1990. "Toward a theory of peer rejection." pp. 365-402. in *Peer rejection in childhood*, edited by S. R. Asher, and J. D. Coi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rittenden, P. M., and M. D. S. Ainsworth. 1989. "Child maltreatment and attachment theory." pp. 432-463. in *Child maltreatment: Theory and research on the causes and consequences of child abuse and neglect*, edited by D. Cicchetti and V. Carlso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aly, M. J., and R. L. Burton. 1983. "Self-esteem and irrational beliefs: An exploratory investigation with implications for counsel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0(3): 361-366.
- Dembo, R., L. Williams, W. Wothke, J. Schmeidler, and C. H. Brown. 1992. "Examining a structural model of the role of family factors, physical abuse and sexual victimization experiences in a sample of high risk youths' alcohol/other drug use and delinquency/crime overtime." *Violence and Victims* 7: 245-266.
- Dodge, K. A., J. E. Bates, and G. S. Pettit. 1990. "Mechanisms in the cycle of violence." *Science* 250: 1678-1683.
- Dornbusch, S. M., K. G. Erickson, J. Laird, and C. A. Wong. 2001. "The relation of family and school attachment to adolescent deviance in diverse groups and communities."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16: 396-422.
- English, D. J. 1998. "The extent and consequences of child maltreatment." *The Future of Children* 8(1): 39-53.

- Gelles, R., and M. Straus. 1990. *Physical violence in American families: Risk factors and adaptations to violence in 8,145 families*. New Brunswick, NJ: Transaction Publishers.
- Green, A. H. 1985. "Children traumatized by physical abuse." pp. 133-154. in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in Children*, edited by S. Eth and R. S. Pynoos.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Press.
- Grus, C. L. 2003. "Child abuse: Correlations with hostile attributions." *Journal of Developmental and Behavioral Pediatrics* 24(4): 196-298.
- Hamre, B. K., and R. C. Pianta. 2001. "Early teacher-child relationships and the trajectory of children's school outcomes through eighth grade." *Child Development* 72(2): 625-638.
- Haskett, M. R., and J. A. Kistner. 1991. "Social interactions and peer perceptions of young physically abused children." *Child Development* 62(5): 979-991.
- Hawkins, J. D., R. F. Catalano, R. Kosterman, R. D. Abbott, and K. G. Hill. 1999. "Preventing adolescent health-risk behaviors by strengthening protection during childhood." *Archives of Pediatrics and Adolescent Medicine* 153: 226-234.
- Hawkins, J. D., R. F. Catalano, and J. Y. Miller. 1992. "Risk and protective factors for alcohol and other drug problems in adolescence and early adulthood: Implications for substance abuse prevention." *Psychological Bulletin* 112: 64-105.
- Herrenkohl, R. C., B. P. Egolf, and E. C. Herrenkohl. 1997. "Preschool antecedents of adolescent assaultive behavior: A longitudinal study."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67: 422-432.
- Hoover, J., and R. J. Hazler. 1991. "Bullies and victims." *Elementary School Guidance and Counseling* 25: 212-219.
- Howe, T. R., and R. D. Parke. 2001. "Friendship quality and sociometric status: Between-group differences and links to loneliness in severely abused and non-abused children." *Child Abuse and Neglect* 25: 585-606.
- Howes, C., and M. P. Espinoza. 1985. "The consequences of child abuse for the formation of relationships with peers." *Child Abuse and Neglect* 9: 397-404.
- Hu, L.-T., and P. M. Bentler.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6(1): 1-55.
- Jessor, R., J. Van Den Bos, J. Vanderryn, F. M. Costa, and M. S. Turbin. 1995. "Protective factors in adolescent problem behavior: Moderator effects and developmental change." *Developmental Psychology* 31: 923-933.
- Kline, R. B. 2005.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2nd ed.). New York: Guilford Press.
- Kochenderfer, B. J., and G. W. Ladd. 1996. "Peer victimization: Cause or consequence of school mal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7: 1305-1317.
- Kolko, D. J. 1992. "Characteristics of child victims of physical violence."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7(2): 244-276.

- Little, T. D., W. A. Cunningham, G. Shahar, and K. F. Widaman. 2002. "To parcel or not to parcel: Exploring the question, weighing the merit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9(2): 151-173.
- McFadyen, R. G., and W. J. H. Kitson. 1996. "Language comprehension and expression among adolescents who have experiences childhood physical abuse." *Journal of Children Psychology and Psychiatry* 37: 551-562.
- Morris, T. L., S. C. Messer, and A. M. Gross. 1995. "Enhancement of the social interaction and status of neglected children: A peer-pairing approach."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4: 11-20.
- Mueller, E., and N. Silverman. 1989. "Peer relations in maltreated children." pp. 529-578. in *Child maltreatment: Theory and research on the causes and consequences of child abuse and neglect*, edited by D. Cicchetti and V. Carlso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Oates, R. K., D. Forrest, and A. Peacock. 1985. "Self-esteem and abused children." *Child Abuse and Neglect* 9: 159-163.
- Olweus, D. 1993. *Bullying at school: What we know and what we can do*. Oxford, England: Blackwell.
- Owens, T. J. 1994. "Two dimensions of self-esteem: Reciprocal effects of positive self-worth and self-deprecation on adolescent problem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9: 391-407.
- Pagelow, M. D. 1984. *Family violence*. New York: Praeger.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 image*. New York: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alzinger, S., R. S. Feldman, M. Hammer, and M. Rosario. 1993. "The effects of physical abuse on children's social relationships." *Child Development* 64: 169-187.
- Siner, J. 1993. "Social competence and cooperative learning." *Educational Psychology in Practice* 9: 170-180.
- Smith, C. A., and T. P. Thornberry. 1995.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 maltreatment and adolescent involvement in delinquency." *Criminology* 33: 451-477.
- Widom, C. S. 1989. "Child abuse, neglect, and adult behavior." *Criminology* 27: 251-271.

Developmental Pathways from Child Abuse to Delinquency

Chung, Ick-Joong*
(Duksung Women's University)

Park, Hyun-Sun
(Chonbuk National University)

Ku, In-Hoe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developmental pathways that mediate the effects of child abuse on delinquency. Data from the first wave of 'Seoul Panel Study of Children(SPSC)' were analyzed. The subjects consisted of 1,811 4th grade students from elementary schools. Structural equation model was employed for statistical analyse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 abuse and delinquency was indirectly mediated by self-esteem, peer rejection, and school attachment. The hypothesized structural model had a good model fit. Abused children were more likely to have low self-esteem, which was associated with higher levels of delinquency. In addition, abused children were more likely to be rejected by peers and to have low school attachment, which was also associated with higher levels of delinquency. Implications for social work practice from this study were discussed.

Key words: child abuse, delinquency, self-esteem, peer rejection, developmental pathway.

[접수일 2006. 3. 14 게재확정일 2006. 7. 10]

* Corresponding Author